

므 고난과 핍박도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된다

성경말씀: 빌1:12-18

빌립보서 바울의 옥중 서신, 로마 감옥에서의 유언, 다양한 주제, 하나도 뻔 것이 없다.
지난주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 목사는 성도 중에서 나온
목사는 열심히 꼴을 먹여야 한다. 나머지는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로의 기쁨이 되자.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100% 선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입는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울의 확신: 모든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의인, 악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으로 행위 의인이 되려 하였다. 남을 정죄하였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위치를 깨달음, 먼지 하나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그 당시 이방인 세상은 마귀에 의해 눈이 가려져서 온 천지가 우상, 고후4:3-6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선포(죽음과 부활과 재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배로, 걸어서, 산과 바다를 넘으면서, 아마도 2만킬로미터 이상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착한 일인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종교를 가지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잘살고 싶다. 만수무강, 변영신학, 샤머니즘

예수님을 이런 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꿈을 깨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후4:8-12).

바울의 예: 고후11:23-27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있는가? 고후1:8-9

고후6:4-10, 딤후3:10-12, 그는 교회 안에서의 영웅일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영웅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결국 원치 않는 방식으로 로마행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말로가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을까?

더욱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카이사르에게 호소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뻔히
알면서 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지?”, “너무 확신이 세, 고집에 세, 그게 문제야?” “결국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잖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뒤 자기의 심정을 기술함
여기에 위대한 사람의 고백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원치 않는 고생, 고난
조금이나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자. < >

고난과 핍박이 복음 확장의 기회(12-14)

12절 설명: 그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 확장의 기회, furtherance 복음이 멀리 진출됨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전혀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소망: 복음, 빌립보서 안에서만 복음이 9차례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된다면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롬1:16-17).

13절: 그의 감옥 결박이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알려짐,

궁궐 안에는 왕족, 귀족 그리고 9000여 명의 정예 군사, 온갖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들
이 군사들은 궁궐에 갇혀 있는 죄수들 보호, 감시, 당연히 바울과 함께 지내게 됨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접함, 핵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처형, 부활
그 결과 카이사르의 집안사람들도 믿게 됨(4:22), 상상도 하지 못한 일

바울의 소원(롬1:10-13), 가고자 하였는데 마귀가 가로막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죄수가 되어
거기에 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킴, 특별히 고관들에게 변화를 일으킴

14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 더 말씀 선포

두려움을 갖던 성도들이 복음이 고위층에 전달되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

복음이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에 의해 선포됨(15-18)

로마 교회의 다수는 담대하게 복음 선포, 그런데 소수는 악한 의도로 복음 선포(15)

그들은 시기와 다름으로 바울을 미워함, 시기와 다름은 육신의 열매, 다른 사람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것, 우리는 어떤가? 다른 성도들이 잘되면 기뻐해야 한다. 교회 안에도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자 아마도 지도자들 가운데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을 것이다.

바울의 경력과 자기들의 경력 비교, 비교가 안 됨, 성도들이 그에게 더 신경을 씀

요삼의 디오드레베(9-10), 그들은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복음 선포(16)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끝에 가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아멘이 되어야 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든,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교단도 마찬가지

꼭 자기를 통해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영역을 갖고 타인 접근 금지

이런 사람을 소인배라고 한다. 교회에 특히 많다.

“내가 더 많이 구원받게 해서 바울을 눌러야겠다. 그러면 그의 코가 납작해지겠지.” 시기, 악한 의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잘할 수 있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어떻게 바울이 나왔는가? 그의 선배인 바나바가 그를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소개

그 뒤로 그는 바울에게 밀렸다. 행15 이후에는 안 나옴, 그래도 그는 행복한 사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갈 하나님의 그릇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OK

그러나 대다수는 선한 의도로 복음 선포(17): 이들은 바울이 복음 확증하고 변호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줄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였다. 목회자와 선교사, 리더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만사 OK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 지님,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있었다. 풍성한 지식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확신을 보라(18)

예수님만 전파되면 내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아낼 수 있다.

우리의 안락감, 상한 심령, 명성의 쇠퇴, 사람들의 오해 등은 복음 선포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 교회의 목표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

언제나 복음 중심,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세워 주기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복음 중심으로 시작됨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은 쇠퇴하고 교회와 교회 설립 목사 영웅화, 타락: 많은 대형 교회들의 문제 바울의 조언: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지 타파, 인간 개조, 여성 권리 신장, 약자 보호, 올바른 정치관, 국가의 번영 한국의 문제: 복음이 아니라 번영 신학, 이것은 사며니즘, 복음과 교회가 약화됨

결국 일 안하고 먹고살려는 사회주의 병폐, 공산주의자와의 타협, 교황 초청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 복음이 바로 전달되어야 한다.

바르게 구원받아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나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인생에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감정이 상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 외부의 공격, 내부의 갈등

지난 2년 동안 한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회 소환 조사, “나는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을 지난 자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나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아는가? 성경의 보존 확증, 지난 40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빠진 데가 하나도 없다. 모든 교단의 신학, 교리 선언의 근간, 오대양 육대주 복음 선포

그래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청교도들처럼 성경의 완벽한 보존을 믿으며 글 손에 있던 그 번역된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많은 조롱과 멸시, 그러나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 전달됨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전달되면 I am OK.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처럼 때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럴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18절을 암송하자.